『中國學』第77輯 (2021.12.31.) pp.501-522.
DOI http://dx.doi.org/10.14378/KACS.2021.77.77.23
ISSN : 1229-9618

‘어변성룡’형 충자도의 주제 해석 연구

서 성**

【목 차】

1. 문제의 제기
2. 충자도의 ‘이야기 그림’ 유형
3. 충자도의 기호적 유형과 해석
4. 조선 시대의 충 관념
5. ‘어변성룡’형 충자도의 해석 과정
6. ‘어변성룡’형 충자도의 주제와 의의
7. 결론

【초록】

본 논문은 ‘어변성룡’형 충자도의 주제 해석에 있어 기존의 견해에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작성하였다. 현존하는 충자도의 유형을 장식 유형, ‘이야기 그림’ 유형, 기호 유형으로 정리하면서 기존의 어변성룡형 충자도 해석이 상징적 기호 유형으로 읽었기에 순통하지 않았다고 보고 서사적 기호 유형으로 읽으려 시도하였다. 그 결과 도상의 형상과 서사 내용의 대응, 상하 구성의 결합, 도상과 화제의 통합성 등 여러 측면에서 볼 때, 어변성룡형 충자도는 초한전 때 충신 기신이 한왕 유방을 구하기 위해 한왕으로 변장하여 대신 죽고, 형양성의 충신들도 힘과 마음을 합하여 유방의 홍업을 도운 사건을 서사적 기호로 표현하였다고 보았다.

【키워드】 충자도, ‘어변성룡’형, 상징적 기호 유형, 서사적 기호 유형, 기신, ‘충’ 관념, 문자도

* 배재대학교 교양교육부 부교수 (samsun99@hanmail.net)

1. 문제의 제기

조선 시대에 유행한 문자도는 문자와 형상이 하나로 결합된 독특한 시각 표현으로 국내외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아왔다. 문자의 모양에 그림이 지닌 상징 또는 스토리텔링이 절묘하게 결합된 작품은 그 과감한 형상, 독특한 구성, 자유로운 연상, 디자인적 명쾌성 등으로 오늘날에도 영감을 준다. 그동안 문자도에 대해서 상당한 연구 성과가 있었지만, 주제 해석에 있어선 의미있는 진전이 거의 없어 보인다. 본고는 이러한 점에 더하여 '어변성룡'형('魚變成龍'型) 충자도(忠字圖)의 주제 해석에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작성하였다.

사실 효, 제, 충, 신, 예, 의, 염, 치(孝悌忠信禮義廉恥) 여덟 글자를 제재로 한 문자도 가운데 특히 충자도는 다른 문자도에 비해 표현 유형이 다양하며, 주제 해석도 쉽지 않은 편이다. 충자도의 여러 유형 중에서도 어변성룡형 충자도는 잉어, 대합, 새우 등 어족들 가운데서 힘차게 솟아오르는 용을 그려 전체적으로 통합된 구성 속에 선명한 형상을 보여주고 있어 어느 문자도보다도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잉어가 용으로 변한다는 발상을 시각적으로 형상화시킨 이 그림은 힘차고 활달한 기운이 화면을 휘저으며 현실 공간 속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은 시각적 충격을 준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 잉어가 용으로 변하는 것이 왜 '충'을 의미하는가 라고 물었을 때 기존의 답변은 얼른 이해되지 않는 면이 많다. 먼저 그림의 윗부분에 보이는 용과 잉어의 관계에 대한 해석을 보자.

> (1) 잉어는 용의 모체이며, 잉어와 용이 한몸이라는 사상은 임금과 신하가 한몸이라는 사상과 같은 것이므로, 이 그림으로 '충'자를 만든 것은 매우 뜻에 걸맞다고 보겠다.[1]
>
> (2) 어변성룡을 하합(蝦蛤)이 다같이 축하하며 곧은 대쪽 같은 삼려대부(三閭大夫)의 충절을 그렸다.[2]
>
> (3) 어변성룡은 『후한서』의 이응전(李膺傳)에 나오는 얘기로 해마다 봄철이 되면 황하 상류인 용문협곡에서 뭇 잉어가 모여 급류를 타고 뛰어오르는데 이때 성공한 잉어가 용이 된다는 것이다. 이는 곧 뭇 경쟁을 물리치고 과거에 급제하여 신하가 되어 나라에 충성할 수 있다는 얘기로 이어지는 것이다.[3]

---

1) 조자용, 『한국 민화의 멋』, 한국브리태니커회사, 1972.
2) 김철순, 「민화란 무엇인가」, 『민화』, 중앙일보사, 1993, pp.202-203.

(4) ‘어변성룡’은 잘 알려져 있다시피 잉어가 용문을 넘으면 용이 된다는 전설로써, 과거에 급제하여 관로가 순탄하게 트인다는 것을 의미하여 ‘등룡문’이라고도 표현된다. 즉 과거에 급제하여 임금에게 충성을 바치라는 뜻이다.[4]

일견 비슷한 의견들로 보이지만, 용에 대해 (1)에선 임금으로 본 데 비해, (3)과 (4)는 과거 급제자로 보았고, (2)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지금까지의 어변성룡형 충자도의 해석은 위의 범주에서 벗어나진 않는데, 등용문과 연결지어 과거에 급제한 선비가 나라를 위해 일하는 것이 충성이라는 의견이 대세를 이룬다. 또 어약용문(魚躍龍門) 계통의 연장에서 어변성룡 그림이 나왔기에, 출세에 대한 욕망이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 사실 과거 급제는 지방의 인재를 왕을 위해 일하도록 바친다는 ‘공사’(貢士) 개념이 있으므로[5] 이것도 하나의 해석이라 할 수 있으나, 과연 조선 시대 사람들이 과거 급제를 ‘충’이라 생각했는가는 의문이다. 만약 그렇다면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면 충이 아니라는 논리적 모순이 생기기 때문이다. 또 잉어가 급제자라면 대합과 새우는 낙방자라는 뜻이 될 수 있어 자연스럽지 않다. 다음으로 그림의 아랫부분에 대합과 조개가 그려지거나 때로 거북이 그려지는 점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다.

(5) 대합과 새우는 위에서 말한 하합상하(蝦蛤相賀)라는 화제가 말해주듯이 화합(和合)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인데, 이것은 새우 ‘하’(蝦)의 발음이 ‘화’(和)의 발음과 유사하고, 대합 ‘합’(蛤)의 발음이 ‘합’(合)의 발음과 서로 같은 데서 연유한 것이다. ‘충’자 그림에 화합이란 개념이 들어간 이유는 나라에 충성함으로써 군신의 화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뜻으로 새길 수 있다. 대합과 새우는 또 충절과 관련된 굳은 지조와 최상의 직위를 상징하고 있는데, 지조는 대합과 새우가 모두 단단한 껍데기로 싸여 있기 때문이며, 최상은 이들이 가진 껍데기 ‘갑’(甲)을 첫째라는 의미의 ‘갑’(甲)과 같이 볼 수 있기 때문이다.[6]

(6) ‘하합상하’는 새우와 대합의 발음이 ‘화합’(和合)과 유사한 데서 온 것으로, 충성으로써 군신간의 화합을 이루고 서로 치하함을 의미한다.[7]

---

3) 유홍준·이태호, 『문자도』, 대원사, 1993, p.37.
4) 진준현, 「민화 효제문자도의 내용과 양식 변천」, 『선문대학교박물관 명품도록 Ⅳ 민화·문자도』, 선문대출판부, 2003, pp.261-262. 또 윤열수, 「문자도」, 『한국의 문자도』, 삼척시립박물관, 2005, p.56 등 다른 여러 저서에서도 보인다.
5) 戴聖 編, 孫希旦 集解, 『禮記集解』「射義」, 中華書局, 1989, p.1440: “諸侯歲獻, 貢士於天子.” 제후는 해마다 사(士)를 천자에게 공납한다.
6) 허균, 『전통 미술의 소재와 상징』, 교보문고, 1991, p.135.

(7) 거북이가 그려지는 것은 하나라의 걸왕에게 충절로써 간하다가 죽임을 당한 관용봉(그가 죽자 뜰에서 서책을 등에 진 거북이 나왔다는 설화에서 유래)과 관련되어 충성과 절개를 상징한다.[8]

대합과 조개를 그려 군신간의 화합을 나타낸다는 것은 '하합'(蝦蛤)의 한자를 '화합'(和合)으로 읽었기 때문인데, 이는 한국어로 읽든 중국어로 읽든 발음이 같지 않으며, 충자도에서 이렇게 해석할 근거를 찾기 어렵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조선 시대에 군신간의 화합을 충이라 생각했는가 하는 점이다. 오히려 "군주의 명에 따르지만 군주에 이롭지 않은 것을 아첨이라 하고, 군주의 명을 위반하면서도 군주를 이롭게 하는 것을 충이라 한다."[9]는 말이 있듯이 군신간에 화합하는 것이 꼭 충이 아닐 수 있고, 충신이 직언을 올리다보면 군주의 심기를 거스르는 경우도 많다. 대합과 새우의 껍데기가 단단해서 굳은 지조와 최상의 직위를 나타낸다는 말도 근거가 약한데, 대합과 새우의 껍데기는 각(殼)이라 하지 갑(甲)이라 하지 않는다. 또 '하합상하'(蝦蛤相賀)란 글자는 많은 경우 '어변성룡'(魚變成龍)이란 글자와 짝하여 나타나므로, 이 대구는 "어변성룡을 새우와 대합이 축하한다"[10]고 풀어야 하는데, 무엇을 왜 축하하는지 밝히지 못했다. 게다가 이들 글귀는 '용방직절'(龍逄直節, 관룡방의 곧은 절개)과 '비간부심'(比干剖心, 비간의 심장이 도려지다)[11]이라는 지극히 비장한 말과 함께 등장하는데, 여기에 군신이 화합하며 축하한다는 말을 붙이는 것도 어울리지 않는다. 관룡방과 비간이야말로 화합은 고사하고 그들의 충정으로 군주의 심기를 거듭 거슬러 결국 죽음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몇몇 작품에서 등장하는 거북을 관룡방(關龍逄)과 연관지어 그의 사후 뜰에서 서책을 짊어진 거북이 나왔다는 것도 근거가 없다. 이렇게 보면 기존의 해석은 어느 하나 취할 만한 것이 없어 보인다.

필자는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충자도의 유형을 정리하며 기호적 유형의 표현 방법에 대해 생각해보았으며, 이어서 조선 시대의 충 관념을 살펴보았다. 그런 연후에 용과 잉어의 관계에 대한 많은 자료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서사적

---

7) 진준현, 「민화 효제문자도의 내용과 양식 변천」, pp.261-262.

8) 윤열수, 『민화이야기』, 디자인하우스, 1995, pp.267-269. 또 임두빈, 『민화란 무엇인가』, 서문당, 1997, p.152 등 다른 여러 저서에서도 보인다.

9) 荀卿 撰, 王先謙 集解, 『荀子集解』「臣道」, 中華書局, 1988, p.249: "從命而不利君謂之諂, 逆命而利君謂之忠." 고대에 이와 유사한 관념은 많은데, 『춘추좌전』에서도 "나아가면 군주를 위해 마음을 다할 것을 생각하고, 물러나면 그 잘못을 보완할 것을 생각한다."(進思盡忠, 退思補過.)고 했고, 『효경』에서도 "군주의 장점은 따르고, 군주의 결점은 바로잡는다."(將順其美, 匡救其惡.)고 했다.

10) 相賀에서 '相'은 '서로'라는 뜻이 아니라, 목적어가 있음을 나타내는 허사(虛辭)이다.

11) 이 화제는 종종 '비간간쟁'(比干諫諍, 비간이 극력 간언하다)이라 쓰여 있기도 하다.

기호의 가능성을 검토해보았다. 이러한 해석 과정을 통해 충자도를 한층 심도 있게 이해하는 계기로 삼고자 하였다.

2. 충자도의 ‘이야기 그림’ 유형

문자도 가운데 충자도는 가장 다양한 유형을 보인다. 충자도는 장식 유형, ‘이야기 그림’[故事畵] 유형, 기호적 유형 등으로 나눌 수 있고, 기호적 유형은 다시 상징적 기호 유형, 서사적 기호 유형, 추상화된 서사적 기호 유형으로 나눌 수 있어, 모두 다섯 가지 유형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렇게 유형을 나누는 것은 어변성룡형 충자도의 성격을 살펴보고 이를 해독할 방법을 찾기 위해서이다.

첫째, 장식 유형은 충자도에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않은 채 ‘忠’(충)자를 장식적으로 꾸민 경우이다. <그림1>은 충자 형태를 거의 직선만으로 재구성해 장식적 요소를 극대화했는데 현대적인 감각이 돋보여 오늘날에 보아도 여전히 새롭다. 충자 안에는 절지(折枝)를 가득 채웠는데 ‘충’의 정신이 지극히 향기롭다는 예찬으로 여겨진다. <그림2>도 꽃으로 채웠으며, <그림3>은 물고기로 채웠는데 종종 대나무 형상이나 물결무늬로 채운 경우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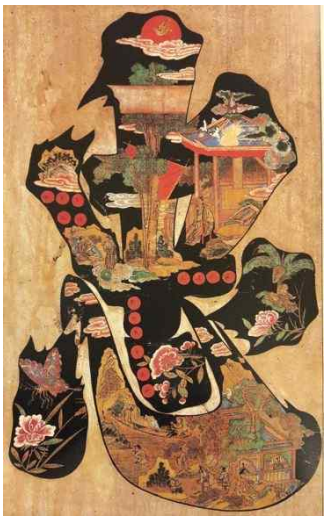
<그림1> 현대화랑 소장

<그림2> 개인 소장

<그림3>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둘째, ‘이야기 그림’ 유형은 인물의 이야기를 그린 경우이다. 예컨대 아래 세 점의 공들여 그린 아름다운 충자도를 보자. 이들은 모두 ‘忠’(충)이라는 글자 속에 ‘이야기

그림'과 한자를 써넣은 것으로, 비록 형식은 같으나 그림과 한자에 약간씩 차이가 있다. <그림4>는 '한나라로 돌아가는 소무'[蘇武還漢], '넓적다리 살을 자르는 개자추'[介子推割股], '들의 강에서 황제를 업고 강을 건너는 육수부'[野水負帝渡江]란 내용의 한자가 적혀 있다. 그림은 개자추와 육수부의 고사(故事)만 그리고 소무는 그리지 않았다. 윗부분 '中'자에는 춘추시대 진나라의 공자 중이(重耳, 나중의 진 문공)가 19년 동안 열국을 떠돌며 갖은 고생을 할 때 개자추가 자신의 넓적다리 살을 베어 주군을 먹인 일을 그렸다. 아랫부분 '心'자에는 몽고의 남침으로 남송의 황실이 남으로 피난 갈 때의 고난을 그린 것으로, 육수부가 피난 중 즉위한 8살 난 어린 황제를 등에 업고 애산(崖山, 지금의 광동성 江門市)의 강에 빠져 함께 죽은 일을 그렸다. 어린 황제가 적에게 모욕을 당하지 않게 하려는 충정이라 할 것이다.



<그림4> 삼성미술관 소장

<그림5> 개인 소장

<그림6> 선문대박물관 소장

<그림5>는 '육수부가 황제를 업고 물에 들어가다'[陸秀夫負帝入水)란 내용의 한자만 있는데, 그림 내용은 <그림4>와 비슷하다. 다만 윗부분에서 진 문공만 그리고 정작 개자추는 그리지 않았는데, 이런 걸 보면 화가가 임모하는 모본에서 개자추와 진 문공이 각기 다른 획 속에 들어가 있기에 연관된 이야기로 보지 못한 듯하다.

<그림6>은 '송나라 문천상이 연 땅의 감옥에 갇히다'[宋文天祥囚燕獄], '굴원이 멱라강에 빠져 죽다'[屈原沈汨羅死], '육수부가 황제를 업고 강에 빠지다'[秀六(夫)負帝溺江中]란 내용의 한자가 보이고, 윗부분 그림에는 물결 속에 사람이 있어 물에 빠진 굴원을 그린 것으로 보인다.

이야기 그림 가운데 초한전 때 유방의 신하 기신(紀信)의 충절을 그린 것도 있다.

<그림8>은 앞의 세 그림과 마찬가지로 위아래에 각기 한 장면씩 그림을 나누어 그렸다. 다행히 그림의 왼쪽 상단에 “충성스러워라 기신이여, 그 모습이 코가 높은 유방과 같구나”[惟忠紀信, 模似隆準]란 내용의 한자가 있어 그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다. ‘융준’(隆準)은 코가 높은 모양을 형용한 말로, 유방의 특징적인 용모를 가리킨다. 그림은 곧 초한전 때 유방이 항우의 포위를 받아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기신이 자신을 희생하여 주군인 유방을 살린 일을 그렸다. 기신은 자신의 용모가 유방과 비슷해 적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사기』「항우본기」에 이 일이 잘 기록되어 있다.

<그림7> 이 충자도에도 개자추와 육수부 고사가 보인다.

<그림8> 동산방화랑 소장

<그림9>『삼강행실도』

<그림10>『오륜행실도』

한나라 장수 기신이 한왕 유방을 설득하며 말했다. “사태가 이미 위급하옵니다. 청컨대 왕을 위해 초나라를 속이고 왕이 되고자 하니, 왕께선 몰래 빠져나가십시오.” 이리하여 한왕 유방이 여자 이천 명에 갑옷을 입혀 밤에 형양성 동문 밖으로 나가게 하니, 초나라 병사들이 사방에서 공격하였다. 기신이 왕이 타는 황옥 수레를 타고 왼쪽에 왕의 깃발을 꽂고 나가 적에게 말했다. “성안에 군량이 떨어져 한왕이 항복하오.” 초나라 군사들이 모두 만세를 불렀다. 이때 한왕은 기병 수십을 이끌고 성 서문으로

빠져나가 성고로 달아났다. 초왕 항우가 기신을 보고선 물었다. “한왕은 어디 있나?” 기신이 답했다. “한왕은 이미 나갔소.” 항우가 기신을 불태워 죽였다.[12]

이때는 기원전 204년으로, 형양에서 한군과 초군이 맞서 있을 때 일어났다. 원래 한중에 있던 유방이 재기하여 관중을 파죽지세로 칠 수 있었던 것은 항우가 제왕(齊王) 전영(田榮)과 그 동생이 지금의 산동 지방에서 계속 대항하였으므로 전병력을 이곳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유방은 쉽게 팽성까지 갈 수 있었지만, 이때 항우가 단지 삼만의 군사를 이끌고 와 반격하니 한나절도 못되어 유방의 오육십만 대군 가운데 십만여 명이 죽어 그 시체로 수수의 강물이 흐르지 못할 지경이었다. 유방의 부모와 처자도 모두 포로로 잡혔다. 유방이 형양까지 후퇴하여 전열을 가다듬는데 항우가 초군을 이끌고 와 형양성을 포위한 것이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기신이 나선 것이다. 결국 기신이 자신의 목숨을 적에게 내주고 유방을 살린 셈이었다. 이는 조선 세종 때 나온 『삼강행실도』(<그림9>)와 정조 때 나온 『오륜행실도』(<그림10>)에 ‘기신이 초나라를 속이다’(紀信誑楚)는 제목으로 그려져 민간에도 널리 보급된 충신 이야기이다.

<그림8>을 보면 윗부분에 유방이 군사를 이끌고 성문을 나서는 모습이 보이고, 아랫부분에 황옥 수레를 탄 기신이 거짓 항복하러 가는 장면이 보인다. 기신 앞에 말 탄 사람은 초군 병사일 것이며, 다시 그 왼편에 세 명의 인물이 왼쪽으로 달아나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들은 한군 병사로 변장한 여인들로 보인다.[13] 이 고사(故事)는 『삼강행실도』와 『오륜행실도』의 그림 내용과 같은데, 그림 아랫부분에 황옥을 탄 기신이 태연한 모습으로 군사와 휘장에 둘러싸인 항우를 만나러 가는 사이, 윗부분의

12) 司馬遷, 『史記』「項羽本紀」, 中華書局, 1959, p.326: “漢將紀信說漢王曰: ‘事已急矣, 請爲王誑楚爲王, 王可以閒出.’ 於是漢王夜出女子滎陽東門被甲二千人, 楚兵四面擊之. 紀信乘黃屋車, 傅左纛, 曰: ‘城中食盡, 漢王降.’ 楚軍皆呼萬歲. 漢王亦與數十騎從城西門出, 走成皐. 項王見紀信, 問: ‘漢王安在?’ 曰: ‘漢王已出矣.’ 項王燒殺紀信.” 또 班固, 『漢書』「高帝紀」, 1962, p.40에도 같은 내용이 보인다.

13) 유홍준·이태호, 『문자도』, 대원사, 1993년, p.103에서 “한나라의 영양왕 때 초나라 항우군을 물리친 충신 기신에 대한 고사 내용……‘中’ 부분에 말을 타고 칼과 창을 든 기신과 세 병사 그리고 성문과 깃발들, 소나무가 보이며 아래 ‘心’ 부분에는 영양왕의 가마와 승전보를 전하는 말을 탄 기신이 묘사되고”라고 했는데, 이는 적절한 독해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먼저 『사기』에 “기신이 왕이 타는 황옥 수레를 타고 왼쪽에 왕의 깃발을 꽂았다”(紀信乘黃屋車, 傅左纛)고 명확히 나오므로 心자 속 가마 탄 사람은 기신일 수밖에 없다. 이는 같은 구도로 그려진 <그림9>와 <그림10>을 보면 더욱 명확한데, 그림의 아래에서 기신이 수레를 타고 항우에게 항복하고 있는 한편, 그림 위쪽에서 성벽 너머로 유방이 말을 타고 성을 빠져나가고 있다. 또 영양왕(형양왕을 잘못 쓴 것으로 보임)이란 봉호는 역사서에 나오지 않으며, 이때의 ‘영양왕’은 ‘형양성의 한왕’이라 해야 하며, 기신은 항복하러 간 것이지 항우군을 물리치면서 일어난 일이 아니며, 기신은 항우에게 잡혀 바로 불태워 죽임을 당하므로 말을 타고 승전보를 전하러 갈 수가 없다. 문자도와 관련한 많은 글에서 이러한 착오를 반복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성벽 너머로 유방이 빠져나가고 있다.

이처럼 ‘이야기 그림’ 유형은 사건이 잘 드러나도록 인물의 행동을 전형적인 장면 속에 그린 형식으로 개자추, 육수부, 굴원, 기신이 그려졌고, 그밖에 소무, 문천상은 한자로 언급되었다. 여섯 명의 충신 가운데 다섯 명이 죽음으로 충렬을 드러냈다.

3. 충자도의 기호적 유형과 해석

충자도의 세 번째 유형은 기호적 유형인데, 이는 다시 상징적 기호 유형과 서사적 기호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상징적 기호 유형은 사물로 정신적 속성을 비유하거나 상징하는 경우이다. 예컨대 <그림11>은 대나무와 새우로 충자의 윗부분을 그렸는데, 대나무는 곧고 견결한 마음으로 충성을 다한다는 비유이고, 새우는 신하가 몸을 굽혀 일편단심을 가진다는 뜻이다. 대나무가 충절을 의미하는 것은 널리 알려졌지만, 새우가 붉은 마음(丹心)을 가진다는 것은 근거를 찾기 어렵다. 그런데 몇몇 ‘충’자 문자도에 쓰인 ‘곡배단심’(曲背丹心)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다.

<그림11> 상징적 기호의 예. 현대화랑「문자도, 현대를 만나다」(2021.9.14 - 10.31) 전시장의 판넬에 게시된 새우 충자도의 다양한 형상.

‘곡배’는 등이 굽은 새우를 가리키고 ‘단심’은 새우의 붉은 몸통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심(心)자는 심장의 모양을 그린 상형자로, 심장과 마음이란 뜻 이외에 심장이 인체의 중심에 있는 데서 ‘사물의 가운데 부분’이란 뜻이 있다. 우리가 쓰는

중심(中心)이란 단어의 심(心)도 그러한 예이다. 그리하여 '곡배단심'은 '새우의 가운데에 있는 붉은 몸'이 될 것이고, 그래서 검은 껍질 속에 붉은색으로 층을 나누어 몸통을 칠한 여러 그림을 볼 수 있다. 대합조개 역시 껍질 속의 살이 통째로 붉다. '붉은 중심'(丹心)으로 '붉은 마음'(丹心)을 나타내는 것은 같은 발음으로 다른 의미를 나타내는 해음(諧音)의 방법이다. 마침 새우가 中(중)자 속에 있으니 그 구성이 더욱 절묘하다. 새우나 대합과 같은 사물도 '충'의 뜻을 온몸으로 새기고 있는 만큼 사람도 응당 충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는 비유로도 읽을 수 있다.

다음으로 서사적 기호 유형은 사물로 인물 이야기를 가리키는 경우이다. 효자도(孝字圖)가 좋은 예인데, <그림12>의 효자도에 그려진 잉어, 죽순, 귤, 거문고 등은 왕상, 맹종, 육적, 순 임금의 효도 이야기를 각각 가리킨다. 그러나 이들 사물은 다른 환경에서는 다른 의미를 나타낸다. 예컨대 책거리 그림 속에 거문고가 놓여 있다면 서재의 여러 사물 가운데 하나에 그칠 것이다. 결국 서사적 기호 유형에서 사물은 고사를 가리키는 기호 역할을 하는데, 관련된 고사를 모른다면 사물의 형상은 결코 해독되지 않는다.

<그림 12> 서사적 기호가 돋보이는 효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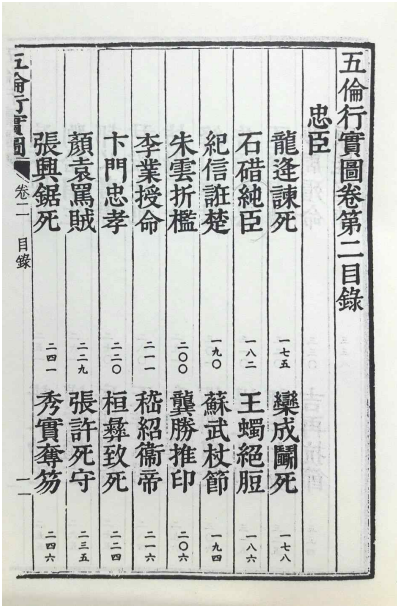
<그림 13> 어변성룡형 충자도 에밀레미술관 소장

충자도에 <그림7>에서와 같이 종종 기러기가 보이는데, 이는 분명 소무의 충절을 가리키는 서사적 기호이다. 소무는 한 무제 때 외교 사신으로 흉노에 들어가 억류되었지만, 무제에 이어 즉위한 소제가 흉노와 다시 통교하면서 사신을 보내 소무를 돌려 달라고 하였다. 흉노는 소무가 이미 죽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사신이 지략을 펼치어 흉노에게 말하길, 한나라 천자가 상림원에서 사냥하다가 기러기를 잡았는데 발에 비단 조각이 묶여 있어 펴보니 소무가 어느 소택지에 있다는 편지였다고 하였다. 이에 흉노가 깜짝 놀라며 사신의 말을 사실이라 믿고 소무를 한나라에 돌려주었다. 충신 소무가 북방의 흉노 땅에서 귀국할 수 있었던 것은 꾸며낸 '기러기가 전해준 편지' 이야기 때문이라 할 수 있어, 이후 '기러기'는 소무와 관련되고, '기러기 편지'를 뜻하는 '안서'(雁書)는 편지를 의미하게 되었다.

우리가 어변성룡형 충자도를 볼 때, 인물의 형상이 없으므로 기호적 유형인 것은 분명한데, 이것이 상징적 기호인지 아니면 서사적 기호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위에서 인용한 (1)~(4)의 의견은 모두 상징적 기호로 보았기에 의미 해석이 순조롭지 않다고 본다면 서사적 기호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새우와 대합은 속이 붉기에 충을 나타내는 상징적 기호로 보았는데, 이러한 배경에서 용과 잉어에 서사적 기호가 있는지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4. 조선 시대의 충 관념

어변성룡형 충자도가 서사적 기호 유형일 수도 있다고 가정한다면 어떤 고사와 연관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전제로 조선 시대에 ‘충’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비교적 효율적으로 서사의 범주를 좁힐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선 시대 충 관념을 알아보는 데는 먼저 민간에 널리 알려진 두 가지 자료가 유용한데, 곧 충자도와 『오륜행실도』에 언급된 충신들이다.


五倫行實圖卷第二目錄
忠臣
龍逢諫死 一七五 欒成鬪死 一七八
石碏純臣 一八二 王蠋絕脰 一八六
紀信誑楚 一九〇 蘇武杖節 一九四
朱雲折檻 二〇〇 龔勝推印 二〇六
李業授命 二一一 嵇紹衛帝 二一六
卞門忠孝 二二〇 桓彝致死 二二四
顔袁罵賊 二二九 張許死守 二三五
張興鋸死 二四一 秀實奪笏 二四六
五倫行實圖 卷二 目錄 一

<그림14> 『오륜행실도』 충신 목록

충자도는 위에서 살펴본 ‘이야기 그림’ 유형에서 보았듯이 여섯 명이 언급되었지만, 어변성룡형 충자도에 종종 ‘용방직절’(龍逢直節, 관룡방의 곧은 절개)[14]과 ‘비간부심’(比干剖心, 비간의 심장이 도려지다)이 대구로 적혀 있으므로 이 두 사람도 추가해야 할 것이다. 관룡방은 하나라 말기 황음무도한 걸왕에게 충간(忠諫)하다 죽임을 당한 충신이고, 비간은 상나라 말기 혼군 주왕에게 충간하다 심장이 도려내지는 벌을 받은 충신이다. 그밖에 ‘삼려단심’(三閭丹心, 삼려대부 굴원의 붉은 마음)이나 ‘삼려충혼’(三閭忠魂, 삼려대부 굴원의 충혼)이란 한자도 종종 보이는데, 전국시대 초나라의 삼려대부 굴원이 참훼를 받아 두 번이나 억울하게 방축을 당했어도 임금에 대한 충정을 버리지 않은 뜻을 나타낸 것으로, ‘이야기 그림’에서도

14) 충자도에 종종 ‘龍逢直節’(용봉직절)이란 글자가 보이는데, 관룡방(關龍逢)을 곧잘 관룡봉(關龍逢)이라 표기하기 때문이다. 이를 의미로 풀면 “용이 곧은 마디를 지닌 대나무를 만나다”는 뜻이 되고 “군주가 충신을 만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다. 그래서 상징적 기호 유형의 충자도에 새우와 대나무 대신 용과 대나무가 그려진 그림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언급되었다. 이렇게 보면 충자도에 나타난 인물을 시대순으로 나열하면 관룡방, 비간, 개자추, 굴원, 소무, 기신, 문천상, 육수부 등 모두 여덟 명이며, 이중 소무를 제외한 일곱 명은 모두 죽음으로 충렬을 드러냈다. 말하자면 문자도에선 이들 여덟 명의 행적을 곧 '충'이라고 본 것이다.

다음으로 『오륜행실도』의 충신을 보면 모두 35건이 적혀 있는데, 이중 한국의 충신도 6건이 들어있다. 번거롭지만 논의를 위해 나열하면 아래와 같다.

용봉간사(龍逢諫死): 하나라 관룡방이 걸왕에 간언하다 죽임을 당하다.
난성투사(欒成鬪死): 춘추시대 진나라 난성이 곡옥 무공의 회유에도 싸우다 죽다.
석작순신(石碏純臣): 춘추시대 위나라 대부 석작이 아들 석후를 역신 주우와 함께 죽여 진실한 신하의 모범을 보이다.
왕촉절두(王蠋絶脰): 전국시대 제나라 왕촉이 악의의 부름에 목을 끊고 죽다.
기신광초(紀信誑楚): 초한전 때 기신이 한왕을 살리기 위해 초나라 항우를 속이다.
소무장절(蘇武杖節): 서한 소무가 흉노에 19년간 억류되면서도 부절을 놓지 않다.
주운절함(朱雲折檻): 서한 주운이 장우를 탄핵하면서 성제의 노여움을 사고 충정으로 버티다가 난간을 부러뜨리다.
공승추인(龔勝推印): 서한 공승이 왕망이 내리는 인수(印綬)를 밀치고 굶어 죽다.
이업수명(李業授命): 서한 이업이 왕망의 명을 거부하고 독약을 마시다.
혜소어제(嵇紹衛帝): 서진의 혜소가 혜제를 옹위하다 죽다.
변문충효(卞門忠孝): 동진의 변곤과 두 아들이 성제의 명에 죽다.
환이치사(桓彝致死): 동진의 환이가 소준의 난을 평정하다 죽다.
안원매적(顔袁罵賊): 당나라 안고경과 원이겸이 안록산을 죽음으로 꾸짖다.
장허사수(張許死守): 당나라 장순과 허원이 안록산에 대항해 죽음으로 성을 지키다.
장흥거사(張興鋸死): 당나라 장흥이 사사명을 꾸짖다 톱으로 잘려 죽다.
수실탈홀(秀實奪笏): 당나라 단수실이 황제를 찬탈하려는 주자의 홀을 빼앗다.
연분쾌사(演芬快死): 당나라 석분연이 이회광의 역모를 저지하려 기꺼이 죽다.
약수효사(若水効死): 북송 이약수가 휘종을 옹위하며 충신을 본받아 죽다.
유겹연생(劉韐捐生): 북송 유겹이 금나라에 항복하지 않고 목숨을 버리다.
부찰식립(傅察植立): 북송 부찰이 금나라 알리불에게 절하지 않고 꼿꼿이 서다.
방예서금(邦乂書襟): 북송 양방예가 금나라 완안종필에게 혈서를 쓰며 저항하다.
악비열배(岳飛涅背): 남송 악비가 등에 '진충보국'이라 문신을 새기다.
윤곡부지(尹穀赴池): 남송 윤곡이 원나라의 침공에 가족과 함께 연못에 빠져 죽다.
천상불굴(天祥不屈): 남송 문천상이 원나라의 회유에 굴하지 않다.
방득불식(枋得不食): 남송 사방득이 원나라에 굴하지 않고 먹지 않고 죽다.
화상손혈(和尙噀血): 금나라 완안진화상이 몽고군에게 피를 뿜으며 호통치다.

강산장군(絳山葬君): 금나라 완안강산이 원나라 공격에 자결한 애종을 장사지내다.
하마자분(蝦蟆自焚): 금나라 곽하마가 원군에 서주를 사수하다가 스스로 분신하다.
보안전충(普顔全忠): 몽고 보안불화가 명나라에 대항해 죽자 전 가족이 따라 죽다.
제상충렬(堤上忠烈): 신라 박제상이 왕자 미사흔을 구한 후 화형으로 죽다.
비녕돌진(丕寧突陣): 신라 비녕이 백제군에게 돌진하자 아들과 종도 돌진해 죽다.
정이상소(鄭李上疏): 고려 정추와 이존오가 신돈의 방자함에 대해 상소를 올리다.
몽주운명(夢周殞命): 고려 정몽주가 이성계를 저지하려다 목숨을 잃다.
길재항절(吉再抗節): 고려 길재가 이방원이 내리는 벼슬에도 절개를 굽히지 않다.
원계함진(原桂陷陣): 조선 김원계가 선주를 약탈하는 왜구와 싸우다 죽다.

위의 제목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충신들은 적에게 저항하다가 죽거나, 역신(逆臣)에 저항하다 죽거나, 군주에게 간언하다 죽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35건 가운데 다행히 죽지 않은 사람은 소무, 주운, 악비, 완안강산, 정추와 이존오, 길재 등 6건에 불과하다. 그러나 소무는 19년간 바이칼호 근처 한랭한 지역에 버려져 목숨을 부지해야 했으며, 주운은 다행히 신경기의 변호와 성제의 아량으로 살 수 있었지만 귀향하여 은거하였다. 악비는 충신으로 유명하거니와 간신 진회와 장준의 모함에 죽는다. 완안강산도 원나라 군의 아량으로 죽임을 당하지 않지만 애종을 묻은 후 스스로 강에 투신해 죽는다. 정추와 이존오도 처형당할 위기에 처했으나 이색의 구원으로 좌천되는데 그친다. 길재는 은거하고선 다시는 출사하지 않는다. 사실 이 6건의 충신들은 충렬의 행동을 원인으로 바로 죽진 않았다고 해도, 모두 죽음을 각오하고 행동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다른 29건의 충신들과 다름없다.

한자 ‘충’의 본의(本意)는 어떤 일이나 대상을 마음[心]의 가운데[中]에 두는 것으로 ‘충실하다’, ‘마음을 다하다’는 뜻이다. 신하가 그 대상을 군주에 둔다면 마음을 다해 자신의 직분을 완수한다는 뜻이 된다. 이러한 정신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때는 군주와 나라가 위난에 처했을 때이다. 이때는 양방예처럼 배가 갈리고 심장이 꺼내지는 참혹함을 겪는다 할지라도 죽음을 무릅쓰고 군주를 위해 절개를 굽히지 않고, 적과 싸우고, 직간(直諫)해야 하는 것이다. 결국 충이란 창검이 자신의 목을 겨누어도 군주에 간언(諫言)하고, 적과 싸우고, 역신에 굴하지 않는 일이다. 근대 시기의 의사(義士)와 열사(烈士)는 이러한 정신을 이어받은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충자도에 등장하는 여덟 명의 충신과 『오륜행실도』에 실린 35건의 충신들 이야기는 그 뜻과 정신이 일치한다. 충자도에 반영된 충신들 이야기 가운데 관룡방, 비간, 소무, 기신, 문천상 등 다섯 명은 『오륜행실도』에도 실려 있다.(굴원은 세종대 판본 『삼강행실도』에 들어 있다.) 그러므로 조선 시대 ‘충’ 개념은 죽음으로도 꺾을 수 없는, 군주와 나라에 대해 본분을 다하는 정신이라 할 수 있다. 군신이

화합하고 과거 급제를 축하하는 뜻과는 상당히 멀다고 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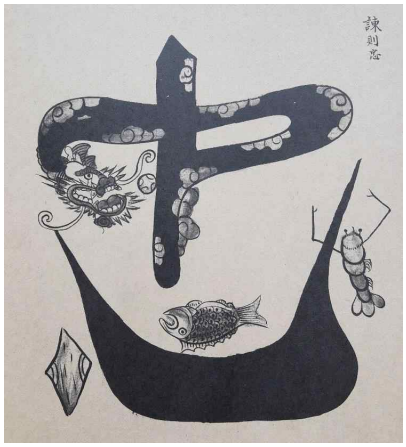
5. ‘어변성룡’형 충자도의 해석 과정

‘어변성룡’형 충자도의 용과 잉어의 관계를 상징적 기호가 아닌 구체적 사건을 가리키는 서사적 기호로 살펴봄에 있어서, 위에서 살펴본 조선 시대 충 관념과 그 고사는 상당히 유효할 것이다. 문자도와 『오륜행실도』에 등장하는 약 40건의 충신들 이야기야말로 충 개념을 핵심적으로 전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우리는 다음과 같은 유추를 더 전개해 볼 수 있다.

첫째, 용과 잉어의 관계는 군주와 신하의 관계일 것이다. 왜냐하면 ‘어변성룡’형 충자도는 위아래가 통합된 구성을 취하는데, 아랫부분의 새우와 대합으로 상징되는 충신들이 과거 급제자를 축하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성립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용이 과거 급제자가 아니라면, 차라리 새로 즉위한 왕이라든지 어떤 식으로든 용은 군주와 연관되어야 충신들의 축하를 받을 것이다. 때문에 잉어는 충신들이 축하해줄 수 있는 충신, 즉 ‘충신 중의 충신’이어야 적절할 것이다.

둘째, 이때의 신하는 장렬한 업적을 세운 사람이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는 조선 시대 충 개념에도 어울리며, 무엇보다도 ‘용방직절, 비간부심’이라는 화제와 더욱 잘 결합되기 때문이다. 그 신하가 관룡방이나 비간처럼 충렬의 면모가 드러냈다면 도상과 화제가 더욱 잘 결합하여 주제를 분명히 전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군주와 신하 사이에 역할 상의 전환이 일어나야 할 것이다. 용과 잉어가 그림으로 연결되어 있고, ‘어변성룡’이라는 화제가 적혀 있으므로, 신하가 군주가 되는 사건이어야 할 것이다. 신하가 군주가 되는 것은 역성혁명이고, 때로 역신이 그러한 일을 할 터인데, 충신이 군주가 되는 경우가 있는지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림15> 갤러리조선민화 소장

여기서 우리는 한 장의 충자도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최근에 공개된 <그림15>의 충자도는 보기 드물게도 그림 우측 상단에 ‘간언하는 것이 곧 충이다’[諫則忠]는 글이 쓰여 있다.[15] 그

15) 이세영, 『조선민화』, 갤러리조선민화, 2020, p.326.

러니까 이 충자도는 어변성룡과 관련하여 어떤 식으로든 간언한다는 뜻을 전하고 있다. 먼저 생각나는 것은 용과 물고기로 군주와 신하의 전도된 신분을 비유하여 경계한 전고이다. 조선 시대 문인들이 좋아했던 이백의 시 「원별리」(遠別離)에 그 일단이 보인다.

君失臣兮龍爲魚, 임금이 충신을 잃으면 용이 물고기가 되고
權歸臣兮鼠變虎. 신하가 권력을 잡으면 쥐가 호랑이로 변한다오.

그러니까 잉어가 용으로 변하는 전설도 있지만, 거꾸로 용이 물고기가 되는 비유도 있는 것이다. 이백은 왕이 충신을 잃으면 ‘용이 물고기가 되는’[龍爲魚] 것과 같다고 경계하였는데, 이는 『설원』(說苑)에 그 출처가 보인다. “오왕이 백성과 술을 마시려 하자 오자서가 간언하였다. ‘아니 되옵니다. 옛날 백룡이 청령의 연못에 들어가 물고기로 변했는데 어부 예저가 그 눈을 쏘아 맞추었습니다.’”[16] 왕이 백성과 함께 하는 것은 백룡이 물고기로 변하는 것과 같고 이는 위험한 일이라는 것이다. 반대로 권신이 왕위를 찬탈하는 것을 이백은 ‘쥐가 호랑이로 변하는’[鼠變虎] 일로 비유하였다. 위의 시구에 대해 역대 평론가들은 안사의 난으로 현종이 황위를 아들 숙종에게 뺏기는 일을 비유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러한 비유는 고려와 조선의 지식인들도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던 것으로, 고려 말기 이달충이 「신돈」(辛旽)이란 시에서 “꿩이 조개로 변하고 매가 비둘기로 변하는 것도 괴이하거늘, 용이 물고기로 변하고 쥐가 호랑이로 변하는 건 어찌 말할 필요 있으랴.”[17]고 했고, 조선의 정약용도 『여유당전서』에서 “개미가 용을 제압하고 쥐가 호랑이로 변하는 것은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이루어진 탓이다.”[18]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징적 기호로 읽는 데는 여전히 난점이 있다. ‘어변성룡, 하합상하’라는 화제가 있으므로, “역신이 왕위를 찬탈하니 충신이 축하한다”는 뜻이 되기에 의미가 어그러지게 되며, 조선 시대의 선명한 충 개념과도 거리가 멀다.

그런데 ‘간언하는 것이 곧 충이다’[諫則忠]고 했을 때, ‘간언’[諫]의 뜻을 더 들여다보면, ‘군주에게 잘못을 경계하고 바로잡도록 말하다’는 뜻 이외에 ‘군주에게 가능한 선택을 제시하고 최상의 해결책을 제안하다’는 뜻도 있다.[19] 사실 이 의미가 ‘간’(諫)

16) 劉向 撰, 向宗魯 校證, 『說苑校證』「正諫」, 中華書局, 1987, p.237: “吳王欲從民飮酒, 子胥諫曰: ‘不可, 昔日白龍下淸泠之淵, 化爲魚, 漁者豫且射中其目.’”
17) 李達衷, 『霽亭集』「辛旽」: “雉蜃鷹鳩猶足怪, 龍魚鼠虎豈容言?” 한국고전종합DB https://db.itkc.or.kr/
18) 丁若鏞, 『與猶堂全書』「詩經講義」: “蟻制龍而鼠變虎, 非朝夕之故也.” 한국고전종합DB https://db.itkc.or.kr/
19) 百度百科‘諫’: “本意是指向帝王陳述各種可能的選擇并提出其中最佳者, 引申義是在帝王做出錯誤選

자의 본의(本意)이다. 요컨대, '간언'은 원래 '좋은 해결책을 제안하다'는 뜻이지만 나중에 '군주의 잘못을 경계하고 바로잡다'는 뜻으로 주로 쓰인 것이다.

위의 내용을 요약하면, 용과 잉어는 군주와 신하를 가리키며, 그 신하는 죽음으로 군주의 잘못을 경계하거나 좋은 해결책을 제안하여, 관룡방과 비간에 맞먹는 장렬한 행동을 한 '충신 중의 충신'일 것이다. 이렇게 서사의 범주를 정한 후, 충자도와 『오륜행실도』에서 사례를 찾아보자.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신하가 왕으로 변한 이야기가 있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위에서 살펴본 초한전 때의 기신(紀信)이다! 기신이 한왕 유방을 위해 왕으로 변장하여 위기를 모면하는 지략을 제시하였고, 결국 자신이 대신 죽으면서 왕을 살렸다. 기신은 "청컨대 왕을 위해 초나라를 속이고 '**왕이 되고자 하니**'"[請爲王誑楚'**爲王**']라 말했고 유방은 이를 허락했던 것이다. 기신은 비록 지극히 짧은 시간이지만 유방의 허락을 받은 때부터 한왕이 타던 황옥 수레를 타고 한왕이 꽂던 깃발을 꽂아 적을 속인 후 발각되기 전까지는 '한왕으로 살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림의 아랫부분에 등장하는 대합과 새우를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문제가 있다. 앞에서 상징적 기호로 보았지만 이 역시 서사적 기호로도 볼 수 있다. 『사기』를 보면 위에서 인용한 기신 관련 서술에 이어 다음 문장이 이어진다.

> 한왕은 어사대부 주가, 종공, 위표에게 형양을 지키게 하였다. 주가와 종공이 모의하여 말하였다. "나라를 배반하는 왕(위표는 유방을 배반하고 항우에 항복한 댓가로 서위왕에 봉해졌다가 불리해지자 다시 유방에 항복하였다)과는 함께 성을 지킬 수 없소." 이에 함께 위표를 죽였다. 초군이 형양성을 함락하여 주가를 생포하였다. 항우가 주가에게 말하였다. "나의 장수가 된다면 나는 그대를 상장군으로 삼고 삼만 호에 봉할 것이오." 주가가 욕을 내뱉으며 말했다. "너희들이 빨리 한왕에 항복하지 않으면 한왕이 바로 너희들을 사로잡을 것이다. 너희들은 한왕의 적수가 아니다." 항우가 노하여 주가를 끓는 물에 삶아 죽이고 더불어 종공도 죽였다.[20]

위 대목을 보면 형양성에는 충신이 기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가와 종공도 있었던 것이다. 대합과 새우는 이 두 사람을 가리키는 서사적 기호로 볼 수 있다. 그리하여 '어변성룡'형 충자도는 더욱 원만하게 기신과 관련된 서사를 완성하게 된다. 어떤 그림에서는 忠(충)자의 '丨'(곤)획 위에 사람 얼굴이 그려지거나 용을 타고 있는

擇時直言規勸." https://baike.baidu.com/item/%E8%B0%8F/5143842?fr=aladdin 참조.

20) 司馬遷, 『史記』「項羽本紀」, 中華書局, 1959, p.326: "漢王使御史大夫周苛、樅公、魏豹守滎陽. 周苛、樅公謀曰: "反國之王, 難與守城." 乃共殺魏豹. 楚下滎陽城, 生得周苛. 項王謂周苛曰: "爲我將, 我以公爲上將軍, 封三萬戶." 周苛罵曰: "若不趣降漢, 漢今虜若, 若非漢敵也. 項王怒, 烹周苛, 井殺樅公."

사람 얼굴이 보이는데, 이는 황제(黃帝)가 용을 타고 하늘로 오른 전설을 반영하여 한왕 유방이 비로소 황위에 오른 것을 그린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6. ‘어변성룡’형 충자도의 주제와 의의

‘어변성룡’형 문자도는 신하 기신이 한왕 유방으로 변장하여 왕을 살리고 자신이 장렬히 죽은 고사를 서사적 기호로 나타낸 것이다. 이 견해는 여러 방면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첫째, 잉어가 용으로 변하는 어변성룡의 도상은 신하 기신이 한왕 유방을 구하기 위해 군주로 변장한 일을 비유할 수도 있다고 했을 때 아무런 모순이 없다.

둘째, 신하 기신이 주군 한왕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일은 조선 시대의 충 관념에 합치되며, ‘이야기 그림’ 충자도는 물론 『삼강행실도』와 『오륜행실도』에도 인쇄되어 널리 알려진 이야기이다.

셋째, 도상의 상하 부분을 하나의 통합된 구성으로 볼 때 아랫부분의 대합과 새우는 기신과 함께 형양성에 있던 두 충신 주가와 종공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넷째, 도상과 화제의 연관성도 원만한데, ‘어변성룡, 하합상화’는 “잉어가 용으로 변하니 대합과 새우가 축하한다.”는 뜻이 되어, 기신의 살신성인에 주가와 종공이 기뻐한다는 뜻이 된다. 한왕을 살리는 일에 충신들이 모두 힘을 모으고 마음을 합하였음을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충의 뜻을 이보다 더 잘 나타낼 수가 없다.

<그림16> 어변성룡형 충자도는 화제로 으레 ‘어변성룡, 하합상하’와 ‘비간간쟁, 용방직절’을 쓴다.

다섯째, 대부분의 도상에서 잉어가 용의 꼬리를 물고 있는데, 이는 꼬리를 없애 진정한 용으로 만들어 준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잘 알려진 등용문 전설에서 용의 꼬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매년 늦봄이면 누런 잉어가 바다와 여러 하천에서 다투어 올라오는데, 한 해 동안 용문에 오르는 잉어는 일흔두 마리에 불과하다. 용문에 막 뛰어오르면 비구름이 뒤따르는데, 하늘의 불이 뒤에서 그 꼬리를

태워 진정한 용으로 변하게 한다."[21] 그러니까 잉어가 용이 되는 과정에서 최후의 단계가 꼬리가 사라지는 것인데, 도상에서 잉어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기신이야말로 유방이 황제가 되는데 결정적인 공을 세웠다는 비유로 볼 수 있다.

여섯째, 많은 그림에서 용은 잉어를 돌아보는 모습을 취하는데, 군주가 희생된 충신을 안타까이 여기는 감정을 나타낸 듯하다. 물론 忠(충)자 중의 口(구)자를 이루기 위해 용이 머리를 돌리게 그렸다고 볼 수 있지만, 기신의 서사를 대입한다면 용이 비상하기 전에 잠시 돌아보는 모습에서 군주의 충신에 대한 한없는 애석함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충신의 희생을 군주가 잊지 않는다는 뜻을 암시하고 있어 충의 정신을 더욱 원만히 장려하는 셈이다.

일곱째, 중국의 역대 군주 가운데 직접적으로 용의 아들로 처음 등장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유방이므로 용의 비유는 더욱 적절하다. 『사기』「고조본기」와 『한서』「고제기」에 다음 기록이 있다. "고조(유방)는 ……아버지가 태공이고 어머니가 유온이다. 일찍이 유온이 큰 연못가에서 쉬고 있다가 꿈속에서 신을 만났다. 그때 우레와 번개가 치고 하늘이 시커멓게 변했는데 태공이 가서 보니 교룡이 유온의 배 위에 있었다. 얼마 후 태기가 있고 마침내 고조를 낳았다."[22] 때문에 유방의 모습도 용을 닮아 코가 높은 '융준'(隆準)의 상을 가졌다는 것이다. 역사서가 유방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용의 아들이라 기록하고 있다.

여덟째, 기신의 고사와 유사한 일이 고려 초기에도 일어났기에 기신의 충정은 더욱 보편성을 지닌 상징으로 간주되었다. 즉 신숭겸과 김락이 견훤의 군대에 포위된 왕건을 구하기 위해 대신 죽은 일에 대해, 고려 예종이 「도이장가」(悼二將歌)를 지어 충절을 기렸고, 조선의 문인들이 이들을 종종 기신에 비유하여 글을 지었다.

위와 같이 도상의 형상과 서사 내용의 대응, 상하 구성의 통합, 도상과 화제 사이의 연관성 등 여러 측면에서 볼 때, 어변성룡형 충자도는 충신 기신이 한왕으로 변장하여 대신 죽으면서 한왕을 구출한 일을, 형양성의 충신들도 힘과 마음을 합하여 이룩한 주제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을 바탕으로 다음의 충자도를 해석할 가능성이 생긴다. <그림17>과 <그림18> 두 그림은 색채와 필치가 약간 다를 뿐 기본적으로 같은 아이디어로 그려졌다. 무엇보다도 눈에 뜨이는 것은 心자 부분에서 잉어의 몸통과 용의 머리를 연결

---

21) 辛氏, 「三秦記」, 『太平廣記』 卷466, 中華書局, 1961, p.3839: "每歲季春, 有黃鯉魚, 自海及諸川, 爭來赴之. 一歲中, 登龍門者, 不過七十二. 初登龍門, 即有雲雨隨之, 天火自後燒其尾, 乃化爲龍矣." 여기서 '하늘의 불'(天火)은 번개로 보인다.

22) 司馬遷, 『史記』「高祖本紀」, 中華書局, 1959, p.341: "高祖……父曰太公, 母曰劉媼, 其先劉媼嘗息大澤之陂, 夢與神遇. 是時雷電晦冥, 太公往視, 則見蛟龍於其上. 已而有身, 遂産高祖." 또 班固, 『漢書』「高帝紀」, 中華書局, 1962, p.1에도 같은 내용이 있다.

하여 어변성룡을 나타내고 있으며, 용의 입에서 나오는 긴 입김이 中자의 가운데를 수직으로 거슬러 올라가 맨 위까지 이른다는 점이다. 心자의 제3, 4획에 해당하는 두 점은 기러기 한 쌍 또는 거북 한 쌍이 각각 차지하고 있다. 그밖에 여러 장식적인 형상이 있음에도 공통적으로 중간에 건물과 성벽이 보인다. 아직까지 해석한 사람이 없는 이 기이하고 독특한 충자도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림 17>온양민속박물관 소장

<그림 18> 홍익대박물관 소장

그런데 위에서 어변성룡형 충자도가 기신의 충렬을 그렸음을 확인한다면, 이 그림은 그 변형임을 알 수 있다. 어변성룡은 기신이 한왕으로 변장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기러기 한 쌍 또는 거북 한 쌍은 주가와 종공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물론 기러기는 소무와 같은 충신을 비유하고, 거북은 용과 함께 나라의 동량이 되는 충신을 비유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렇다면 길게 위로 치솟아 오르는 용의 입김은 무엇일까? 그것은 한왕 유방이 기신의 도움을 받아 멀리 형양성 성벽을 탈출하려는 생각 또는 의도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때문에 이 입김은 건물들과 성벽을 넘어 맨 위의 안전하고 한적한 장소까지 이어지는 것이다. 그림은 이들 서사적 기호들이 상징적 요소와 뒤섞여 훨씬 추상화되었기에 언뜻 보아선 이해하기 힘들 뿐이다. 이를 ‘추상화된 서사적 기호 유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어변성룡형 충자도의 주제에 대해 위와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면 이는 어느 문자도보다 높은 작품성과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주제 표현이 창의적이다. 충신 기신의 살신성인을 어변성룡이라는 형상으로 반영한 것은 한국과 중국의 수많은 기신 관련 자료에서 찾아볼 수 없는 유일무이의 독특한 발상이다. 충신의 희생이 군주의 건국에 직접적으로 공헌함을 보여주거니와, 대합과 새우까지 서사적 기호로 통합되는 난이도 높은 발상을 성공적으로 완성하여, 문자도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창의성을 보여준다.

둘째, 도상과 한자가 잘 어우러진 뛰어난 작품이다. 문자도는 다른 민화와 달리 각각의 주제 한자의 형상 속에 일정한 방식으로 의미를 반영해 형상화해야 하기에 설

계 개념이 들어간다. 화가는 당시에 널리 퍼진 충과 관련된 고사를 빌려오면서도 이를 완전히 새로운 구상 속에 융합하였다. 心자에 충심을 가진 신하의 역할을 배치하고, 中자에 중용을 나타내는 군주의 역할을 배치한 후, 잉어와 용을 연결시켜 비상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상하 구성을 통합시켰다.

셋째, 비장하기 이를 데 없는 충신의 죽음을 비범한 상상력으로 형상화했기에 다른 작품에 없는 예술적 감흥을 전달한다. 충신의 고사는 비극적이나 화면은 밝고 활달하며, 비극성과 해학성이란 상반된 정조가 함께 어우러졌다. 충과 죽음이 무겁고 엄숙한 것이 아니라 나라를 세우는 밝고 위대한 것일 수 있음도 함께 나타냈다.

이처럼 어변성룡형 충자도는 화가의 독창적인 상상력과 서사 해석으로 충신의 장렬한 이야기를 견실한 필치로 담아낸 지극히 가치 있는 작품이라 할 것이다.

7. 결론

다양한 유형의 충자도 가운데에서도 어변성룡형 충자도는 어족들 가운데 잉어가 용으로 변하여 솟아오르고 있어 강한 인상을 준다. 본 논문은 어변성룡형 충자도의 주제 해석에 대해 기존의 견해를 검토하면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려고 하는 데서 출발하였다.

먼저 어변성룡형 충자도가 어떠한 성격을 띠고 있는지 알기 위해, 충자도의 전체 유형을 살펴보면서 장식 유형, '이야기 그림' 유형, 기호 유형으로 정리하였고, 이중에서 어변성룡형은 기호 유형에 속한다는 사실을 쉽게 확인하였다. 다만 기호 유형은 제재의 전통과 도상 내 성격에 따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상징적 기호 유형과 서사적 기호 유형으로 쉽게 오갈 수 있고 그 의미도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때문에 기존의 해석이 모두 상징적 기호 유형으로 보았기에 주제 해석이 순통하지 않은 점으로부터 서사적 기호 유형으로 읽으려 시도하였다.

서사적 기호 유형으로 읽어가는 과정에서도 먼저 상징적 기호 유형의 도움을 받아, 도상의 주요 형상인 용과 잉어는 군주와 신하의 관계이고, 대합과 새우도 충신이라는 사실을 전제하였다. 또 화제로 등장하는 '어변성룡, 하합상하'에서 잉어는 충신들이 칭송하는 '충신 중의 충신'이어야 하는 점을 확인했고, '용방직절, 비간부심'에서 잉어는 관룡방과 비간에 맞먹는 비극적인 사건의 주인공임을 추측하였다. 서사적 기호 유형에 적용하기 위해 충 관련 고사를 조선 시대에 민간에 널리 퍼진 충자도와 『오륜행실도』에서 약 40건 추출하여 살펴보았다.

이러한 결과로 위의 모든 요소, 즉 도상의 형상과 서사 내용의 대응, 상하 구성의

통합, 도상과 화제 사이의 관련성 등 여러 측면에서 볼 때, 어변성룡형 충자도는 초한전 때 충신 기신이 한왕 유방을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 한왕으로 변장하여 대신 죽은 일을 서사적 기호로 표현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형양성의 충신들도 힘과 마음을 합쳐 유방이 홍업(洪業)을 이루도록 도왔다. 어변성룡형 충자도를 이렇게 읽을 수 있게 된다면, 화가의 충자도에 대한 구상과 표현은 어느 문자도보다도 창의성이 뛰어나고 작품성도 높다고 보았다.

어변성룡형 충자도의 주제는 여러 가지 다른 시각에서도 해석할 여지가 있겠지만, 기존의 해석들이 충분한 설득력을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조선 시대의 충 관념과 문자도의 기호적 해석 등 넓은 배경에서 연역(演繹)하여 관련된 측면들을 검토하였기에, 신하 기신이 한왕 유방을 구출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다는 의견은 상당히 유력한 해석일 수 있다고 본다. 이는 선행 연구의 문제점 해결하면서 새로운 의견을 제시했기에 문자도 해석 연구 및 주제 감상에 활력을 주리라 본다.

【참고문헌】

『삼강행실도』,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10.
『오륜행실도』, 학민문화사, 1997.
『민화』, 중앙일보사, 1993.
『선문대학교박물관 명품도록 Ⅳ 민화·문자도』, 선문대출판부, 2003.
『李朝の民畵』, 講談社, 1982.
『조선민화』, 갤러리조선민화, 2020.
『한국의 문자도』, 삼척시립박물관, 2005.
『한국의 채색화 – 책거리와 문자도』, 애스앤아이팩토리, 2015.
유홍준·이태호, 『문자도』, 대원사, 1993.
윤열수, 『민화이야기』, 디자인하우스, 1995.
임두빈, 『민화란 무엇인가』, 서문당, 1997.
조자용, 『한국 민화의 멋』, 한국브리태니커회사, 1972.
허 균, 『전통 미술의 소재와 상징』, 교보문고, 1991.
戴 聖, 『禮記』, 中華書局, 1989.
李 昉 等篇, 『太平廣記』, 中華書局, 1961.
劉 向, 『說苑』, 中華書局, 1987.
司馬遷, 『史記』, 中華書局, 1959.
荀 卿, 『荀子』, 中華書局, 1988.

【논문초록】

키워드 Key Words	중문	忠字圖, 魚變成龍型, 象徵符號, 敍事符號, 紀信, '忠'觀念, 文字圖
	영문	'Chung' word picture, 'Carp turns into dragon'-type, Symbolic sign type, Narrative sign type, Ji Xin, 'Loyalty' concept, Character picture

A Study on the Theme Interpretation of the 'Carp turns into dragon'-type 'Chung' Word Picture

Seo Sung

In this paper, I found problems in the theme analysis of 'Carp turns into dragon'-type(魚變成龍型) 'Chung' word picture(忠字圖) from the existing view and tried to solve it. I read the existing 'Carp turns into dragon'-type 'Chung' word picture interpretation as a symbolic sign type(象徵符號類型) while grouping all types of 'Chung' word picture into decoration type, 'story picture' type and sign type. I tried to read it as a narrative sign type(敍事符號類型) by looking at unfamiliar points. Even in the process of reading as a narrative sign type, with the help of the symbolic sign type, the main shapes of the iconography, the dragon and the fish, ar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onarch and he loyal retainers, and the shellfish and the shrimp are also the loyal retainers. As a result, from various aspects such as the narrative sign of the iconography, the combination of the upper and lower structures, and the integration of the iconography and the subject, 'Carp turns into dragon'-type 'Chung' word picture was described with a narrative sign that Ji Xin(紀信) disguised as Han wang(漢王) Liu Bang(劉邦) to save Liu Bang during the battle between Chu and Han(楚漢戰), and he died instead for Liu Bang and Xingyang city's loyal retainers also used their strength and heart to helping Liu Bang's founding country.

저 자	서성 / 徐盛 / Seo Sung					
논문작성일	투 고 일	2021.11.13.	심 사 일	2021.11.26.	게재확정일	2021.12.18.